

전 세계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러 가지 형태의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 시적 수준 등에
 따라 차별의 정도는 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은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감성적인 측면이 있다.



심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글 신영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시회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HIV 감염이란 사람이 흔히 걸리는 감기의 원인인 라이노바이러스 감염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일반 대중은 물론 전문인이나 친지로부터 오기도 한다. 가장 친한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 그리고 직장 동료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로 부터의 배신, 소외는 감염인에게 인내하기가 어려운 일이 된다. 감염인에게 주어지는 차별과 편견은 결국 이들의 본거지

인 가정과 직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만은 아니다. 감염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줄 동료와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이란 말이 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연민의 정을 나눔으로서 외로움과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다.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같이 생활하고 이해의 정을 나누면서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다른 질환에서 그 필요성이 증명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 60년대에 다른 세균 감염인(한센씨 병)의 사례에서 일종의 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진 동남아에서는 1980년대 부터 각종 단체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때 늦은 감이 있으나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쉼터가 만들어져 여러 기관이 협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염인이 이용해 왔다. 근래 쉼터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 필요성에 회의적인 분도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간 쉼터의 운영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는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초기단계의 경험과 홍보 부족으로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참여 기관 당사자 간의 이해 부족과 역할 분담 간에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 쉼터의 기획과 예산확보 업무, 예산집행과 지출 등 행정 업무, 직접적인 간호, 봉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 간에는 이해와 협동이 요구된다. 이들 모든 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감염인의 건강 문제를 담당하는 분이 경리와 공문처리 업무를 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쉼터 사업은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쉼터 이용의 증가를 위하여 감염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쉼터는 가능하면 감염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쉼터가 대형화 할 때, 이용의 불편성, 비밀의 보장, 소재 주민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관계기관은 감염인이 보다 많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감염인이 쉼터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증가되고 있는 신규 감염인의 대부분은 30,40대 연령층에 속한다. 치료제의 발달로 생존 기간이 연장되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엔 감염인의 다수는 만 65세 이하의 연령층이다. 이들은 노인요양원 같은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감염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쉼터사업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쉼터사업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감염인의 인권은 증진되어야 한다.



감염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쉼터사업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쉼터사업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감염인의 인권은 증진되어야 한다.